

##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서 연대적 지구화의 모색\*

최경석 (남서울대학교, 조교수)\*\*

### I. 들어가는 말

### II.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한 지구적 연대성의 필요

### III. 기독교 윤리적 측면에서 지구적 연대성 모색

1. 정의의 관점에서 연대성
2. 신학적 관점에서 연대성

### IV. 지구적 연대성을 위한 신학-다시 공공신학으로

### V. 포스트 코로나 시대 기독교의 공공성 회복과 연대를 위한 제언

### VI. 나가는 말

DOI: <http://dx.doi.org/10.21050/CSE.2021.50.10>

\* 이 논문은 2020년도 남서울대학교 학술연구비 지원에 의해 연구되었음. 이 논문은 2021년 4월 24일 온라인 화상으로 열린 한국기독교윤리학회 학술대회에서 “연대적 지구화를 위하여-팬데믹 경험을 통해서”란 제목의 발표문을 수정 보완한 것임을 밝힌다.

\*\* 주저자, bochum@nsu.ac.kr.

---

• ABSTRACT •

---

## On the Way to Globalization for Solidarity in the Post-Corona Era

Prof., Choi, Kyung Suk (Namseoul Univ.)

This study examines the concept of solidarity in order to deal with Christian ethics for this pandemic era, concentrating on the Bible and theology. In the Old Testament, human beings were created to be in solidarity with each other. In the New Testament, Jesus teaches solidarity with the socially weak. Through the Reformation era, solidarity is achieved through the freedom God has given to man. Solidarity is presented as human ethics because it encompasses actions through mutual cooperation. The ecumenical movement offers solidarity by giving priority to the poor and expanding its scope to ecology. Public theology provides a way of globalization based on solidarity. Thus, this research demonstrates the formation of globalization for solidarity in the post-corona era.

**Key words:** Post-corona, Globalization based on Solidarity, Pax Universalis, Public theology, World Council of Churches

---

## I. 들어가는 말

인류는 지금 경험하지 못한 새로운 일상에서 살고 있다.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 국경이 봉쇄되거나 이동이 제한되는 것을 인류는 경험하고 있다. 코로나19 바이러스의 지구화 현상이 목도된다. 바이러스는 국경을 따지지 않으며, 인종도 따지지 않으며, 빈부의 격차도 따지지 않는다. 2020년의 화두가 코로나19 그 자체였다면, 2021년의 화두는 그에 따른 백신 또는 백신 접종일 것이다. 영국을 필두로 세계 여러 나라에서 백신 접종이 실시되고 있으며, 대한민국도 2021년 2월 26일 첫 접종을 시작했다. 대한민국 정부는 1차 접종 인원의 목표를 1,300만 명으로 잡았으며 6월 15일 현재 이미 그 목표를 달성했다.<sup>1)</sup>

대한민국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잘 수행하고 있는 국가로 평가된다. 그동안 서구문화는 선진적이며 비서구문화는 후진적 또는 개발도상국의 전유물이라는 정서가 무너졌다. 아시아권에서 대한민국, 대만, 싱가포르 등은 과학기술 분야 특히 정보통신 분야와 접목해서 코로나19 방역에 나름 성공한 국가들로 평가된다. 더 나아가 시민의식의 성장도 그 궤를 같이 했다. 반면에 서구국가들은 아시아 국가들에 비해 방역이 실패하거나 자랑스러운 서구시민의식의 모습인지 의아한 광경<sup>2)</sup>을 자아냈다. 대한민국은 코로나19 사태 이전까지 선진국의 방역체제를 모방하여 매뉴얼을 적용했다면, 코로나19 사태 이후에는 매뉴얼을 스스로 만들어 전 세계에 배포하고 있다.<sup>3)</sup>

1) '109일 만에 '1차 접종 25%'...프랑스·독일보다 빨랐다, 『경향신문』, 2021년 6월 15일자, <https://m.khan.co.kr/national/health-welfare/article/202106152118015#c2b>, 2021. 6. 25일 접속.

2) 대표적인 예가 미국, 영국, 이탈리아 등에서 나온 생활필수품 사재기의 모습이다.

3) 진단키트 활용, 검사소에서 다양한 진단방법,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 선거, 소위 쥐어짜는 주사기 등이 그 예다.

현격한 산업의 발달로 인해 지구화가 진행된 시기는 17세기부터였다.<sup>4)</sup> 기계, 교통, 통신의 발달로 전 세계에서 경제적 지구화가 빠르게 진행되었다. 1970년대부터 시작된 금융 시장의 급성장은 지구경제를 자유주의로 회귀시켰다. 최근에는 인공지능과 빅데이터 등의 첨단 기술로 경제적 지구화의 속도에 제동장치가 사라진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신종 바이러스가 나타나면서 사람의 이동량이 전 지구적으로 현저히 감소되었다. 인류는 지역공동체, 국가, 어쩌면 전 인류의 생존 자체를 고민하고 있다.<sup>5)</sup> 생명과 연결된 문제를 전 인류가 직시하고 있다. 지금 우리 시대는 경제적 이익을 찾아가는 욕구에서 생명을 유지하는 욕구가 절실한 시기로 전환되고 있다.

역사적 측면에서, 전염병의 확산은 여러 제국들의 흥망에 영향을 주었다. 반면에 전염병으로 인해 인류는 새로운 문화를 만들어 낼 수 있었다. 중세 서유럽의 페스트는 봉건사회를 붕괴시키고 화폐경제를 촉진시켰으며, 1918년부터 20년까지 유행했던 스페인 독감은 의료기관의 확장에서부터 의료종사자들의 안전까지 이르는 공공보건 시스템의 구축을 촉진시켰다.<sup>6)</sup> 코로나 팬데믹은 이런 측면에서 또 다른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고 본다. 즉 경제적 지구화와는 다른 지구화를 모색하는 작업이 필요해 보인다. 즉 생명을 위한 지구화 말이다. 백신과 치료제 개발과 같은 의료기술과 바이러스의 확산을 제어하는 방역기술이 어느 한 나라에만 국한된다고 해서 지구적 팬데믹을 막을 수는 없다. 오히려 이런 기술을 다른 나라들과 공유하고 상호 연대해야 막을 수 있다. 코로나 팬데믹은 어쩌면 연대적 지구화를 위한 기회로 볼 수 있다. 기독교 윤리적 측면에서 연대적

4) Fulcher, J., *Kapitalismus*, (Stuttgart: Kohlhammer, 2007), 8이하

5) 문정인, 『문정인의 미래 시나리오 코로나19, 미중 신냉전, 한국의 선택』, (서울: 청림출판, 2021), 20.

6) 위의 책, 28-29.

지구화를 위한 윤리적 규범으로 연대성에 대한 합의가 절실히 요구된다. 지구적 연대성의 모색은 공공신학을 통해서 가능하다.

이런 의미에서 제2장에서 주로 논의될 내용은 사회과학적 측면에서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하여 지구적으로 연대성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제3장에서 연대성에 대한 신학적 논의가 전개되고, 제4장에서 공공신학에 대한 신학자들의 입장이 정리될 것이다. 제5장에서 지구적으로 연대성이 통용될 수 있는 하나의 장으로서 다자주의 국가들, 국제기구, 그리고 에큐메니칼 운동이 협력할 연대적 지구화가 가능한지를 살펴볼 것이다.

## II.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한 지구적 연대성의 필요

사회적 측면에서, 많은 사람들이 포스트 코로나에 대해서 이야기한다. 이른바 새로운 일상이다. 문정인은 코로나 팬데믹 사태가 가져올 새로운 일상에 대해서 세 가지로 말한다. 먼저 불확실성이 강한 미래 경제에 더욱 큰 충격이 예상된다. 세계 경제가 바닥을 찍고 상승할 것이라는 견해, 계속된 경기 침체, 또는 경제적 양극화의 심화로 예상되지만 공통점은 “경제적 충격과 새로운 일상”이다.<sup>7)</sup> 둘째로 사회적 안정을 추구했던 많은 국가들에게 사회적 거리두기 또는 국경봉쇄로 인한 불확실한 사회가 예고된다. 그 사회는 대량실업으로 인한 사회적 문제, 온라인 국제회의, 비대면 교육, 재택근무로 인한 온-오프 공존사회, 4차산업과 인공지능 발달로 인한 노동시장의 양극화, 이를 통한 노동소외와 사회소외, 더 심각한 것은 개인 정보의 독점과 공유로 인한 감시사회의 출현, 이로 인해 사회적 연대감의 실종이 가속화됨으로써 파생될 “사회적 영향과 새로운 일상”이다.<sup>8)</sup> 마지막으로 바이러스 확산을 억제하기 위해서 국내 지역에서까지

7) 위의 책, 30-35.

8) 위의 책, 35-41.

개인의 이동을 금지하고, 국경의 폐쇄와 이민의 금지 등을 통해서 민족주의나 인종주의 성향이 대두되고 있다. 코로나 사태에 대한 기득권 정치세력의 대처가 향후의 권력을 소유하기 위한 중요한 척도가 되었다. 위험사회에서 기득권 정치세력이 예측 가능하지 못한 위기에 놓였을 때, 그 대처 여부에 따라서 “정치적 파장과 새로운 일상”이 일어난다.<sup>9)</sup>

문화 인류학적 측면에서, 바이러스가 인류에 침투한 시기는 인류가 동물을 가축화하기 시작하면서부터이다.<sup>10)</sup> 농경산업이 발달한 곳에서 가축 사육이 활발해지면서 인류는 공동생활을 시작했다. 가축의 몸에 살던 세균들이 인간으로 옮겨와 공동생활을 하던 인간들에게 빠르게 전염되었다. 인류의 역사에서 인간의 주요한 사망 원인인 “천연두, 인플루엔자, 결핵, 말라리아, 페스트, 홍역, 콜레라” 등의 세균들은 동물의 질병에서 진화되어 인간으로 전염된 것들이다.<sup>11)</sup> 유라시아 대륙에서 농경이 발달하면서 동시에 바이러스도 진화했다. 1492년 콜럼버스의 신대륙 발견으로 인해 서구는 아메리카 대륙의 원주민들을 학살하며 그 대륙을 장악했다. 서구, 특히 스페인의 잔혹한 정복에 희생된 원주민들 수보다 바이러스에 의해 희생된 원주민들이 더 많았다.<sup>12)</sup> 바이러스를 몸에 장착한 문명이 세계를 패권했다는 것이다.

생물학적 측면에서 가축들, 동물들의 세균은 새로운 숙주와 매개 동물들에 적응하면서 진화한다. 진화한 세균들을 보유한 국가가 전쟁이나 다른 경로를 통해서 세균을 인간에 침투시킬 때, 또는 코로나19 바이러스처럼

9) 대한민국에서 지난 2020년 4월 총선 거대 여당의 출현이나, 일본 총리의 변경, 미국 대선에서 민주당의 승리 등은 코로나19 대응으로 인한 기득권 정치에 영향을 준 사례로 들 수 있다. 위의 책, 41-50.

10) Diamond, J., *Guns, Germs, and Steel*, 김진준 옮김, 『총, 균, 쇠』, (서울: 문학사상사, 2014), 285이하.

11) 위의 책, 287.

12) 위의 책, 288.

럼 대유행이 될 때, 사람들은 이른바 생태안보, 특히 생물학적 안보를 중요한 안보 사안으로 생각할 것이다. 바이러스는 가난한 사람들에게 더욱 치명적이다. 이미 지구화로 인한 상호 의존의 국제질서에서 개별국가 체제로 코로나 사태가 해결되기 어렵다. 심지어 전 세계에서 가장 고립된 북한의 경우, 코로나19 바이러스 유입을 우려하고 있다. 즉 코로나19 바이러스는 지구적 안보의 문제인 셈이다.<sup>13)</sup>

사정이 이렇다 보니 백신을 먼저 개발한 선진국이나 백신 개발 기업을 보유한 국가에서 먼저 자국 국민에게 우선 접종하는 이른바 ‘백신 민족주의’<sup>14)</sup> 태도가 나타났다. 그러나 일부 국가에서 백신을 먼저 접종할지라도 다른 국가들에서 환자들이 지속적으로 발생한다면 백신접종의 효과는 떨어질 것이다. 오히려 백신 분배를 위한 지구적 연대화, 백신의 공공재와 적정가격의 선정이 필요해진다.<sup>15)</sup> 치료제 개발에서도 사정은 마찬가지다. 국내 기업 셀트리온의 코로나19 바이러스 치료제가 2021년 3월 26일 유럽의약품청(European Medicines Agency: EMA)의 허가를 받아 수출할 수 있게 되었다.<sup>16)</sup> 셀트리온 서정진 회장은 2020년 11월 24일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에서 치료제 보급을 위해서 정부와 협조할 것이며, 개발도상국가들에게 저렴한 가격으로 수출할 것을 공언했다.<sup>17)</sup> 백신과 치료제의 공급과 분배에서도 지구적 연대화의 움직임이 포착되고 있다.

13) 문정인, 『문정인의 미래 시나리오 코로나19, 미중 신냉전, 한국의 선택』, 59.

14) 토머스 볼리키(Thomas Bollyky)와 채드 바운(Chad Bown)이 처음 사용한 표현이다. 2020년 미국, 유럽연합, 일본 등에서 백신 개발 회사들과 사전 공급 계약을 맺은 것은 백신 민족주의 사례로 꼽힌다. 자세한 내용은 위의 책, 80-82를 참조하라.

15) 빌 게이츠(Bill Gates)는 백신의 공공재를 위해 거액(3억 달러)을 기부했다.

16) ‘유럽의약품청 “셀트리온 치료제, 코로나 중증 진행 위험 환자에 사용 가능”’, 『조선일보』, 2021년 3월 26일자, <https://www.chosun.com/international/europe/2021/03/26/UWHRU36JQVAJPNDSZSYG3NCXV4/>, 2021. 4. 9. 접속.

17) “코로나 백신은 공공재, 정부에 협조할 것”(서정진),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 2020년 11월 24일 방송, [https://www.youtube.com/watch?v=gbkqC\\_qT06o](https://www.youtube.com/watch?v=gbkqC_qT06o), 2021. 4. 9. 접속.

경제적 측면에서 코로나 사태로 인해 인간의 이동을 통한 생산과 소비가 주춤해졌다. 국경 통제와 봉쇄 정책으로 인해 생산품의 공급망이 마비되었다. 전 세계적으로 소비는 위축되고 자국의 내수 경제뿐만 아니라 수출과 수입의 통로도 통제되었다. 각 국가는 긴급재정을 통해 공적 통화량을 늘려 내수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전 국민에 재난지원금이 지급되면서 ‘기본소득’의 개념이 인구에 회자되었다. 자국 내에서 사회적 연대의 중요성이 부각된 셈이다. 기존의 신자유주의 노선의 경제적 지구화에서 다른 지구화가 모색되어야 할 때이다.

그러나 사회 안정적 측면에서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 기존의 사회적 약자들의 처우가 더욱 악화되었다. 코로나19 팬데믹의 장기화로 인해 기존에 집에서 거주하는 돌봄이 필요한 노인, 장애인, 정신질환자에 대한 돌봄서비스가 감소되고 있다. 정부는 5인 이상 집합금지로 많은 돌봄 제공기관들에게 최소한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요구한다. 사회적 약자들, 노인, 장애인, 정신질환자 등에 대한 돌봄서비스가 감소되어 그들의 욕구가 충족되지 않는다. 최근에는 자영업자의 급격한 감소와 일자리의 감소로 청장년층의 실업자가 급증하고 있다. 사회적 거리두기는 많은 중소기업에도 치명타를 주고 있어 청년세대의 실직과 급여 감축 현상이 나타난다.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한 기존 복지 돌봄서비스의 축소와 사회적 약자, 청년, 여성, 저숙련 노동자들의 실직과 폐업 등으로 인해서 사회적 불평등의 심화와 삶의 질 저하 등이 장기화될 우려가 커지고 있다.

소위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세계 질서는 예측 불가능하다. 다만 몇 가지의 시나리오들이 표상될 수 있다. 문정인은 다섯 가지로 전개될 것이라고 예상하는데, 미국과 중국 사이의 대결이 지속되는 “현상 유지”, 코로나의 장기화로 인해 배타주의가 태동되어 자국 이기주의로 귀결되는 “성곽 도시와 새로운 중세”, 국제기구를 통해 연대와 협력하는 “팍스 유니버설

리스”, 미국의 패권이 강해진 “팍스 아메리카나II”, 그리고 중국의 부상으로 중국이 미국과의 패권에서 승리를 거둔 “팍스 시니카”다.<sup>18)</sup> 문정인은 최악의 시나리오로 실현 가능성이 가장 낮은 “성곽도시와 새로운 중세”를 언급하고 가장 좋은 시나리오지만 역시 실현 가능성이 낮은 “팍스 유니버설리스”를 꼽았다.<sup>19)</sup>

현실 세계 질서의 틀에서 실현 가능성이 희박하지만, 윤리적 측면 특히 기독교윤리를 고려할 때, 문정인의 세 번째 “팍스 유니버설리스”의 시나리오가 주목된다. 코로나19의 위협, 핵확산방지, 기후변화 등과 같은 수많은 지구적인 난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다자주의 노선이 필요하다. 국제연합(UN)을 중심으로 세계 평화가 모색되고, 세계무역기구(WTO), 국제통화기금(IMF), 세계은행 등의 다자주의 경제기구와 국제연합(UN) 사이에서 핵확산 방지와 기후변화에 대한 방안이 모색될 수 있다. 아울러 미국과 중국 사이의 견제세력으로 중견국가들의 다자주의 협의체가 결성되고, 지방정부들과 비정부국제기구(NGO)의 협력을 통해서 지구적 공공재 생산이 가능하다.<sup>20)</sup> 이를 위해서는 지구적 연대가 절실히 요구된다.

### III. 기독교 윤리적 측면에서 지구적 연대성 모색

#### 1. 정의의 관점에서 연대성

연대성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인류에게 필요한 윤리적 규범일 것이다. 연대성이란 개념에서 사람들은 쉽게 두 가지를 표상할 수 있다. 먼저는 어떤 특정 단체 구성원들의 연대로 다른 단체의 구성원의 침투를 거부하는 연대성이며, 두 번째는 사회적 약자들 사이에서 또는 그들과 연대하

18) 문정인, 『문정인의 미래 시나리오 코로나19, 미중 신냉전, 한국의 선택』, 109-151.

19) 위의 책, 152.

20) 자세한 내용은 위의 책, 123-128을 참조하라.

는 사회 정의적 측면에서 연대성이다.<sup>21)</sup>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서 전자의 입장은 이른바 백신 민족주의의 모습 속에서 자국민의 연대성으로 나타날 수 있다. 후자의 입장은 백신의 공공재 속에서 사회적 약자들과 또는 개발도상국가들과의 연대성으로 볼 수 있다.

사회적 약자들은 바이러스에 취약한 계층이기에 돌봄이 절실하다. 사회적 약자들에 대한 돌봄은 개별국가별로 진행될 수 있다. 지구적 시각에서 볼 때, 개발도상국가들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는 것이 버겁기만 할 것이다. 백신과 치료제의 수급부터 어려워 자국 내에서 바이러스 확산 방지를 위해 국경 폐쇄가 필연적으로 단행될 것이다. 이런 위험 부담 속에서 지구적 연대성이란 틀에서 백신과 치료제의 공공재가 논의되고 있다. 연대성과 공공재의 논의는 정의를 수반해야 한다. 정의를 무엇으로 결정할지에 따라서 연대성과 공공재 논의의 결과는 다르기 때문이다.

마이클 샌델(Michael J. Sandel)은 그의 책 “정의란 무엇인가?”<sup>22)</sup>에서 정의를 세 가지 유형 속에서 해석한다. 정의를 행복의 극대화로 이해하는 공리주의의 유형, 정의를 자유와 연관시켜 개인의 권리 존중을 중요시하는 자유주의의 유형, 그리고 정의를 좋은 삶을 추구하는 것으로 보면서 공동체의 미덕을 강조하는 공동체주의 유형이 바로 그것이다. 이런 입장에서 최근 존 아서스(John Authers)는 코로나 팬데믹에 대한 대응이 국가별로 차이가 있는 것을 보면서 정의의 유형에 따라서 네 가지로 분류했다.<sup>23)</sup> 여기에서 아서스의 이해를 빌려 샌델의 정의의 유형에 따라서 코로

21) Bedford-Strohm, H., “Solidarität”, in: Honecker, M., (Hg.), *Evangelisches Soziallexikon*, (Stuttgart: 2001), 1419.

22) Sandel, M., J., *Justice*, 이창신 옮김, 『정의란 무엇인가』, (과주, 김영사: 2010)

23) Authers, J., “How Coronavirus Is Shaking the Moral Univers”, *Bloomberg News*, Mar. 29, 2020, <https://www.bloomberg.com/opinion/articles/2020-03-29/coronavirus-pandemic-puts-moral-philosophy-to-the-test>. 2021. 4. 9. 접속. 아서스는 샌델의 자

나19의 대응책을 재구성하고자 한다.

최대 다수의 행복을 추구하는 공리주의자들은 코로나 팬데믹으로 일부 피해자들의 치료를 위해 전체 사회가 붕괴되는 것을 선호할 수 없다. 병상의 침대가 턱없이 부족할 때, 고령 환자와 젊은 환자들 중 누구에게 병상의 침대를 줄 것인지를 결정에서 젊은 환자들에게 우선 배정시킬 것이다. 고령 환자들을 치료했을 경우, 그들에게 들어가는 사회적 비용은 크기 때문이다. 젊은 환자들을 치료했을 때의 경우는 그 반대다. 경제활동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사실 영국과 이탈리아에서 코로나19 초기에 이런 공리주의 선택을 했지만, 여론의 못매를 맞으며 철회했다. 스웨덴의 경우 소위 집단면역을 시도했지만 다른 국가의 의료 도움을 받아야 했다.

개인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받아야 하는 자유지상주의자들은 사회 통제와 온정주의를 거부한다. 이들에게 개인의 건강을 위해 국가의 도움 따위는 관심 밖이다. 오히려 개인 스스로 해결해야 한다. 코로나 팬데믹으로 개인의 자유를 제한하는 국가의 방역 시스템에 반대하여 개별로 시위를 벌인다거나 방역 수칙을 과감히 어기는 경우가 나타났다. 미국에서의 개인주의자들의 시위와 대한민국에서 2020년 8월 15일 전광훈 무리들과 보수주의자들의 행태가 여기에 해당된다. 하지만 개인의 자유가 공동체의 생명권을 위협할 수 있다.

공동체의 덕성과 연대성을 강조하는 공동체주의는 좋은 삶을 위해 공공선을 추구한다. 많은 국가들이 방역 시스템을 작동시키고 시민들은 여기에 잘 따르면서 공공선을 추구한다. 실제 대한민국 정부가 종교 단체들에게 비대면 모임을 요청했을 때, 불교, 가톨릭, 그리고 개신교 단체가

---

유주의의 유형에 속한 존 롤즈(John Rawls)의 정의를 또 다른 하나로 취급하면서 4가지로 분류했다. 아서스에 따르면 차등의 원칙을 활용하여 가장 취약한 사람들이 의료 혜택을 받아야 한다. 문정인, 『문정인의 미래 시나리오 코로나19, 미중 신냉전, 한국의 선택』, 44.에서 재인용.

이 조치에 협조했다. 일부 자유주의 개신교들은 여전히 종교 탄압이라고 소리를 내지만 방역의 효과는 나타나고 있다. 좋은 삶을 위해 사회적 약자와 더불어 생태까지 연대하는 미덕을 중요시하는 공동체주의 정의가 생명을 유지하는 욕구가 강한 코로나 팬데믹 시대에 적합하다고 본다.

## 2. 신학적 관점에서 연대성

성서에서 연대성이란 단어를 찾아보기 어렵다. 오히려 연대성의 개념을 유추할 수 있다. 이웃 사랑의 실천이 현대적 의미에서 연대성으로 볼 수 있다. 연대성은 구약성서의 증언에서도 유추될 수 있다. 창조신학의 입장에서 인간은 하나님에게 경작이란 문화명령을 받으며(창세기 2: 15) 서로 돕는 자(창세기 2: 22)로 이해된다. 그 전에 이미 모든 피조물들은 인간을 돕도록 창조되었다.(창세기 2: 18) 신명기법의 핵심은 약자 보호다. 사람들은 신명기법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이 이집트의 노예였던 사실을 상기하면서 레위인, 과부, 고아, 그리고 나그네들(신명기 14: 28-29), 즉 사회적 약자를 사회 안으로 참여시켜 그들과 연대한다. 예언자 이사야는 하나님의 응답은 압제당하는 자에게 자유를, 가난한 자에게 먹을 것을 줄 때(이사야 58: 6-9), 들리게 된다. 구약성서에서 인간은 서로 돕도록(연대하도록) 창조되었으며, 사회적 약자들을 위해 연대할 경우, 하나님은 축복으로 응답하신다고 증언한다.

신약성서에서 연대성은 이웃 사랑과 연결될 수 있다. 예수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이중 계명을 가르쳤다. 세상을 섬기러 온 예수처럼 가난한 사람들과 연대하여 그들을 섬기는 것이 이웃 사랑인 셈이다. 예수는 이사야의 전승에 따라서 가난한 사람들, 포로 된 사람들, 그리고 눈먼 사람들을 주목하며(누가복음 4: 18-21), 배고픈 사람들, 나그네들, 병든 사람들, 그리고 갇힌 사람들을 자신과 동일시시켜, 사회적 약자들과의 연

대를 비유적으로 설명한다.(마태복음 25: 31-46) 초대교회는 구성원들 사이의 밀접한 연대를 실천했다.(사도행전 2: 42-47) 바울신학의 입장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모든 인간은 하나(갈라디아서 12: 28-34)이며,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하나님의 자녀(로마서 8: 16)들이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은 그의 자녀들인 인간들이 피조물과 화해(로마서 8: 21)하면서 연대하기를 촉구한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은 세상의 미련한, 천한, 멸시받는, 그리고 없는 사람들(고린도전서 1: 27-28)을 위한 것이다. 신약성서에서 예수는 사회적 약자들과 연대하고 하나님의 자녀들로 하여금 이웃 사랑의 실천을 통해서 연대하라고 증언한다.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Martin Luther)에게서 연대성을 도출하는 출발점은 그의 신학명제인 이신칭의에 있다. 당시 기독교가 업적주의 또는 공로주의를 통해서 개인의 구원을 강조했다면, 루터는 오직 하나님의 전적인 은총을 통하여 받은 자유를 강조했다. 이 자유는 사람과 사물을 섬기는 자유다. 이기적 업적이 아닌 다른 사람의 이익과 행복을 위한 업적이다. 이웃들과 생태계까지 연대하여 공동체의 행복을 이끄는 것이 루터에게 중요했다.<sup>24)</sup> 직업 소명론을 주목할 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인간은 노동을 통해서 그리고 이웃에게 섬김과 봉사를 통해서 연대성의 개념이 도출될 수 있다. 개인의 재산 소유도 공동체를 위해 사용하도록 루터는 장려한다.<sup>25)</sup> 특히 루터는 율법설교를 통해서 사회적 약자들의 후생 복지에 관심을 가지면서 이를 구체적으로 실현시킬 라이스니히 고동모금함 규정(Leisniger Kastenordnung)을 제정했다. 이 규정의 관심대상은 바로 가난한 자들을 구제하는 것이다.<sup>26)</sup>

24) 이같은 해석으로 Brakelmann, G., *Zur Arbeit geboren? Beiträge zu einer christlichen Arbeitsethik*, (Bochum, 1988), 35.

25) 이동호, “루터의 종교개혁과 디아코니아”, 『기독교사회윤리』, 41(2018), 54.

26) 위의 책, 60.

장 칼뱅(John Calvin)에게서 연대성은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이해될 수 있다.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자기부정을 통해서 이웃 사랑의 실천은 공동체와의 연대를 의미한다. 공동체 속에서 연대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행위로 이해될 수 있다. 직업을 하나님의 소명으로 이해한 칼뱅은 직업을 모든 사람들이 직업활동을 통해서 서로의 필요성을 충족시키는 것으로 보았다. 직업은 공동체의 이익에 이바지해야 한다. 부의 불균형 해소를 위해서 인간의 삶에서 상호 보완과 연대성이 필요하다. 이럴 때, 인간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다. 부의 소유는 하나님의 축복이지만 동시에 사회적 약자들을 위해 나누기 위한 것이어야 한다.<sup>27)</sup> 이신칭의를 통해 나오는 자유(루터)와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자신을 부정하며 나오는 자유(칼뱅)가 이웃 사랑이란 연대와 연결된다. 이런 의미에서 자유를 통해서 연대성이 도출됨이 종교개혁자 두 명의 연대성에 대한 공통된 입장이라고 볼 수 있다.

디트리히 본회퍼(Dietrich Bohoeffter)는 공동체를 “의지의 공동체(Willengemeinschaft)”로 이해한다. 의지의 공동체는 의지를 일치시켜 동일한 방향성을 설정한다. 서로 다른 사람들이 모인 의지의 공동체는 의사소통의 과정에서 의견의 대립이 있을 경우 합의를 통해 공동의 의지를 찾는 곳이다.<sup>28)</sup> 그러나 엄격히 말하면, 본회퍼에게서 연대성을 찾는 일은 어렵다. 왜냐하면, 독일 개신교에서 연대성에 대한 논의는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난 직후 슈투트가르트 죄의 고백(Stuttgart Schuldbekenntniss)에서 나치(Nationalsozialismus)의 죄에 독일 개신교도 연대성 속에 있다고 고백하면서 본격적으로 시작되었기 때문이다.<sup>29)</sup> 그럼에도 본회퍼의 의지의

27) 이동호, “칼빈의 경제윤리와 디아코니아”, 『기독교사회윤리』, 43(2019), 204.

28) Bonhoeffer, D., *Sanctorum communio. Eine dogmatische Untersuchung zur Soziologie der Kirche*, Joachim, von Soosten, (Hg.), (München, 1986), 51.

29) Beckmann, J., (Hg.), “Die Stuttgarter Schulderklärung”, in: *Kirchliches Jahrbuch 1945-1948*, (Gütersloh, 1950), 26.

공동체는 독일 개신교가 다양한 사회 속에서 서로의 의지를 모아 연대하려는 전통을 세우는 데 기여했다고 본다.<sup>30)</sup>

귄터 브라켈만(Günter Brakelmann)은 기독교의 연대성을 사회복지 정책의 법을 제정하는 데 있어 연결고리로 생각한다. 사회적 불평등과 기회의 불평등의 문제에 대한 해답을 찾기 위해서 사회적 연대성이 고려된다. 타인의 아픔을 이해하면서 그들의 아픔에 참여하는 연대와는 다른 이른바 “총체적 연대성(Gesamtsolidarität)”<sup>31)</sup>을 브라켈만이 제시한다. 총체적 연대성의 궁극적 목적은 기독교의 특혜와 계층 간의 불평등을 극복하는 것이다. 총체적 연대성의 궁극적 목표는 법치 국가의 틀에서 연대성에 관한 입법을 통해서 점진적으로 총체적 연대성에 도달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 모든 사람들은 연대하고 같은 처지로 상호협력하는 요소가 구성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이런 의미에서 보편적 연대성이 설정되어야 한다. 보편적 연대성의 개념은 성서에서 증언되는 데, 바로 이웃 사랑의 계명이다. 연대성은 지금까지의 기독교의 특혜와 계층 간의 불평등 해소를 위해 공동체가 좋은 삶으로 정해져 내려오는 미덕으로서 묘사될 수 있다. 더 나아가 연대성은 상호협력을 통한 행동을 포괄하기 때문에 인류의 윤리로 제시된다.<sup>32)</sup>

에큐메니칼 운동에서 연대성은 가난한 자들에게 관심을 가진다. 부를 축적한 사람들의 책임들 중 하나는 가난한 사람들을 경제적 사회적 과정에 포함시키는 것이다. 이렇게 함으로써 가난한 사람들이 주변인에 머물

30) 이같은 평가로 Jähnichen, T., “Solidarität als Begriff der evangelischen Theologie und Sozialethik”, in: *Jahrbuch für christliche Sozialwissenschaften*, 48. Bd. (Münster, 2007), 86. 예니헨(Jähnichen)은 이 글에서 연대성의 논의가 독일 개신교에서 발간하는 백서에서 어떻게 논의되고 발전되었지를 기술하고 있다.

31) Brakelmann, G., *Abschied vom Unverbindlichen. Gedanken eines Christen zum demokratischen Sozialismus*, (Gütersloh, 1976), 94.

32) 위의 글, 96.

지 않는다. 에큐메니칼 운동에서의 사회 윤리적 목표들 중 하나는 가난한 사람들이 사회적 안전망에서 사람답게 살 수 있도록 사회복지국가를 형성하는 데 교회가 노력하는 것이다.<sup>33)</sup> 특히 “정의, 평화, 그리고 창조질서의 보전”의 공의화 과정의 구상 속에서 교회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방법으로 생태계와 연대를 고려한다.

#### IV. 지구적 연대성을 위한 신학-다시 공공신학으로

대한민국에서 코로나19의 대유행이 시작될 때, 개신교 단체 또는 개신교 이단이 중심에 서 있었다.<sup>34)</sup> 이런 상황에서 한국 사회에서 개신교는 감정적인 혐오를 넘어서 정죄까지 당하고 있다. 이는 한국 개신교에서 예전부터 만연한 개인 또는 개교회의 이기적이고 전투적인 신앙 양태가 낳은 결과물이라 해도 과언은 아니다. 결국 한국 개신교에 결여된 공공성을 회복하는 일이 절실한 시기다. 공공성의 회복은 비단 한국 개신교에게만 국한된 것은 아니다. 전 지구적으로 공공성의 회복이 필요하다. 이미 신학에서 공공성의 회복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공공신학이 바로 그것이다. 지구적 연대성을 모색하기 위해서 다시 공공신학의 논의가 필요한 시기가 도래했다. 이런 의미에서 마르틴 루터를 시작으로 에큐메니칼 운동까지의 신학적 흐름에서 공공신학을 다시금 정리하는 것은 유용한 작업이라 판단된다.

루터의 두 왕국론에서 공공신학의 단초들이 있다. 루터의 복음과 율법의 용법에서 교회에게 주어진 율법의 용법과 세상에 주어진 율법의 용법을 통해서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통치방법을 확인할 수 있다. 이 점을

33) 에큐메니칼 운동이 가난한 사람들에 관심을 가지는 표현은 독일 개신교 백서, EKD, *Gerechte Teilhabe, Befähigung in Wandel der Arbeitswelt*, (Gütersloh, 2006), 46-47.

34) 신천지, 전광훈을 필두로 한 집단, 인터콥, IM선교회, 그리고 최근에는 소위 순례단 예배가 코로나19를 확산시켰다.

통해서 루터에게서 공공신학의 가능성이 열렸다.<sup>35)</sup> 율법의 정치적 용법에서 공권력은 세상의 정의와 평화를 수립하는 데 사용된다. 공권력 사용이 자칫 사용자들의 권력 연장을 위해 남용될 경우, 교회는 감시자 역할을 담당해야 한다. 루터는 율법 설교와 가르침을 통해서 세상의 정치가들이 자행하는 공권력의 전횡을 비판하며 그들을 감시할 수 있다고 본다.<sup>36)</sup> 특히 사회적 약자에 대한 경제 문제들과 복지 문제들을 고려하며 매점매석과 고리대금에 대한 지침은 율법설교의 전형적 형태라 볼 수 있다.<sup>37)</sup>

칼뱅의 정치윤리적 입장에서도 공공신학의 모습들이 유추될 수 있다. 칼뱅에 따르면 교회와 국가의 공권력들은 서로 경쟁하지 않고 보완하고 지원해야 한다.<sup>38)</sup> 교회와 국가는 서로 단절되지 않고 구별되면서 동시에 연관되어 있다. 교회는 세상 공동체에 대해서 치유적 종교의 역할을 담당해야 한다. 국가가 하나님에 주신 국민의 기본 권리들을 유린할 경우, 교회는 반대해야 하며, 동시에 국가는 교회의 자유를 침해할 수 없다. 이런 의미에서 교회는 국가에 대해 견제력을 가진다.

본회퍼에게 있어서 공공신학의 출발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실현된 하나님의 계시현실성(Offenbarungswirklichkeit)으로 볼 수 있다. 그리스도의 현실은 곧 하나님의 현실이며 세상의 현실이다. 세상은 그리스도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현실이 된 것이다. 그러기에 세상에서의 그리스도인들의 공적인 윤리가 필요하다. 형성으로서의 윤리가 바로 그것이다. 형성으로서의 윤리가 자라는 곳은 교회다. 그리스도인들은 궁극적인 것을 향

35) 강원돈, “세속국가의 헌정질서와 교회의 공론 작업: 루터의 율법설교에 대한 해석에 근거하여”, 한국「기독교사회윤리」, 40(2018), 34-35.

36) Luther, M., *WA(Weimarer Ausgabe) 51*, 353, 367, 422.

37) 고리대금과 매점매석에 대해서는 Luther, M. *WA(Weimarer Ausgabe) 6*, 3-8, 36-60을 보라.

38) Strohm, C., “Calvinismus”, in: Honecker, M., (Hg.), *Evangelisches Soziallexikon*, 234.

한 길을 예비(Wegbereitung)하기 위해서 세상에서 궁극이전의 것들을 형성시키는 책임이 있다. 이를 위해서 교회는 “외부를 향한 내부로의 집중”<sup>39)</sup>해야 한다.

본회퍼의 종말론적 신학 “이미”와 “아직” 사이에서 궁극 이전의 것의 모색은 브라켈만의 세상에서 “보다 더” 좋은 또는 “보다 더” 옳은 것을 찾는 비교급의 윤리로 발전되었고 아르투르 리히(Arthur Rich)의 “상대적인 것”과 “절대적인 것”의 매개를 통한 “실존적 종말론”의 윤리로 발전되었다. 볼프강 후버(Wolfgang Huber)는 본회퍼의 교회론을 발전시켜 독일에서 공공신학을 논의한다. 또한 스탠리 하우어위스(Stanley Hauerwas)는 공공성 회복을 위해서 교회의 교회됨을 강조했다.

칼 바르트(Karl Barth)는 나치의 경험을 통해서 세상에 대한 긍정을 그리스도의 왕권통치와 연결한다.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유비를 통해서 그리스도인들도 예수의 사랑을 실천해야 한다. 그리스도의 왕권통치에서 벗어난 영역 또는 국가는 배격의 대상이다.<sup>40)</sup> 교회(그리스도 공동체, Christengemeinde)와 국가는(시민 공동체, Bürgergemeinde) 두 개의 원으로 교회는 국가에 포함된다. 국가는 그리스도의 왕권통치 영역과 관계유비적으로 존재하기에 국가는 정의를 수행해야 하고 교회는 국가가 그러하도록 과수꾼의 역할을 해야 한다.<sup>41)</sup> 이런 의미에서 바르트도 공공신학의 여지를 열어놨다고 볼 수 있다.

후버의 공공성 신학의 근본은 교회론이다. 후버에게 있어서 공공성의

39) Bethge, E., (Hg.), *Dietrich Bonhoeffer Werke Bd.14*, (München, 1996), 77. 보다 자세한 내용을 위해서는 강안일, “새로운 수도원운동: 본회퍼의 사상을 중심으로”, 『기독교사회윤리』, 37(2017), 34-37을 보라.

40) 바르텐 신학선언 제2조의 핵심이다. Burgsmüller, A. und Weth, B., (Hg.), *Barmer Theologische Erklärung, Einführung und Dokumentation*, (Neukirchlichen-Vluyn, 1983), 35. These II.

41) 바르텐 신학선언 제5조의 핵심이다. 위의 책, 38. These V.

영역은 예수 그리스도의 주권이 미치는 모든 곳이다. 공간적으로 우주 전체이며 시간적으로 영원까지다. 교회에서 선포되는 설교는 공적인 의사소통의 힘이 있기에, 교회 밖으로 확장이 가능하다. 교회가 공공성을 가지기 위한 척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주권에서 나오는 믿음, 소망, 그리고 사랑이다. 이런 척도에 가까운, 보다 좋은 정의의 실현과 사랑의 문화를 구축하는 노력이 교회에 요구된다. 이를 위해 첫째, 교회는 진리의 의사소통의 장을 열어야 하며 둘째, 시민사회와의 의사소통을 위한 백서와 같은 문서를 제작하며 셋째, 경제활동에의 영역에서 공공성을 실현하며 마지막, 문화적 영역에서도 의사소통이 교회에 요구된다. 이런 의미에서 교회는 모든 영역에서 공공성의 임무가 요구된다.<sup>42)</sup> 아울러 시민사회와의 중재적 역할로서의 교회는 정치적 측면에서 정의와 인권을 위해 노력하며 생태 질서를 유지하는 데 이바지해야 한다.<sup>43)</sup>

맥스 L. 스택하우스(Max L. Stakehouse)는 합리적 이성의 소유자들에게 적용시킬 신학을 모색한다. 교회가 감당할 윤리들은 시민사회에서도 통용되어야 한다. 교회 안에서 머물지 말고 교회 밖으로 나아가 공적인 행동을 하는 신앙의 공적인 측면이 강조된다. 소명의 측면에서 인간들은 공공의 영역에서 하나님을 위해 일하도록 부르심을 받았다. 교회는 하나님의 소명을 받은 공동체다. 스택하우스의 공공신학의 핵심은 소명을 받은 교회에 부합한 사명으로서 공공의 영역에서 청지기의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다.

하우어워스는 본회퍼의 “외부를 향한 내부로의 집중”을 확장시킨다. 교회가 세상에 대한 윤리를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 자체가 윤리적이어야 한다. 교회가 밖으로만 확장한다면 교회는 세상의 정치와 결탁할 가능

42) W. Huber, “Öffentlichkeit und Kirche”, in: Honecker, M., (Hg.), *Evangelisches Soziallexikon*, 1173.

43) 위의 글.

성이 많기 때문이다. 교회는 그래서 윤리 자체인 교회를 회복하는 일이 필요하다. 교회는 그리스도 공동체에서 전해져 내려오는 이야기, 즉 예수 이야기를 공유하면서 그로부터 옳은 것이라고 간주되는 덕성을 회복해야 한다. 예수의 덕성이 풍부한 교회공동체가 시민사회의 모범이 되는 것, 이것이 하우어워스의 공공신학의 핵심이다.

근대 에큐메니칼 운동은 세계에서 일어나는 사회문제에 천착하며 태동되었다 해도 과언은 아니다. 1910년 에딘버러 제1차 “세계선교대회(International Missionary Council)”부터 1925년 스톡홀름 제1차 “생활과 노동(Life and Work)” 세계대회를 거쳐 1948년 암스테르담 제1차 세계교회협의회까지 이어진 에큐메니칼 운동들의 주제들 속에서 세계의 사회문제는 늘 그 중심에 서 있었다. 세계교회협의회는 “책임사회론”, “정의롭고 참여적이고 지탱 가능한 사회”, 그리고 “정의, 평화, 그리고 창조질서의 보전”이라는 패러다임의 변천 과정을 통해서 교회가 세상을 향한 공적 활동을 하도록 촉구한다. 특히 “정의, 평화, 그리고 창조질서의 보전”의 공의화 과정의 구상은 비록 전 세계 교회에 구속력은 미약하나 교회가 창조질서의 보전에 참여함으로써 생태계에 대한 교회의 책임을 강조한 것이다. 에큐메니칼 운동이 가지는 공공성은 세계 문제들 중 가난한 사람들을 우선으로 고려한다.

문제는 공론의 장에서 기독교의 공공신학의 목소리를 내는 방법이다. 여기에 대해서 강원돈의 입장이 설득력을 가진다. 그는 기독교가 가지고 있는 공공신학을 공론의 장으로 이끌어 갈 방법에 대해서 다섯 가지로 말한다. 먼저, 기독교의 목소리와 공론의 장의 목소리의 어조가 다르기에 공론의 장이 설령 기독교의 언어를 이해하지 못해도 인내해야 한다. 둘째, 기독교에서 표출된 공적인 언어들이 공론의 장에서도 의사소통이 가능하도록 가공되어 제시되어야 한다. 셋째, 기독교가 어느 한 편에 서야 한다

면, 그것은 반드시 사회적 약자의 편에 서야 한다. 넷째, 기독교는 궁극적인 것을 목표로 삼아 궁극이전의 것과 보다 좋은 보다 정의로운 비교급의 윤리를 표방해야 한다. 마지막, 문서를 작성해서 기독교 내에서 기독교인들을 교육과 설득하면서 그들이 공론의 장에서 지도력을 발휘하도록 기여해야 한다.<sup>44)</sup>

## V. 포스트 코로나 시대 기독교의 공공성 회복과 연대를 위한 제언

문정인이 제안한 팩스 유니버설리스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지구적 연대를 위해 요구되는 세계 정세의 시나리오로 해석될 수 있다. 미국과 중국의 갈등 속에서 중견국가들을 중심으로 모인 다자주의적 노선의 대표적 단체는 G7(Group of seven)이다. 이들은 코로나19, 핵확산 방지, 기후변화 등과 같은 지구적 문제를 논제의 중심으로 삼고 있다. 다자주의 입장에서 지구적 연대에 대한 방향을 모색하고자, 2021년 6월 11일부터 13일까지 영국 콘월(Cornwall)에서 G7회의가 열렸다. 여기에 모인 각 국가들의 정상들은 백신에 대한 파트너십을 모색, 백신 허브 구축, 백신에 대한 공평한 접근을 논의하면서 코로나19 백신의 공유에 대해 공동성명을 발표했다.<sup>45)</sup> 성과는 조금씩 나타나고 있는데, 미국은 백신을 공유하고, WTO는 여기에 협력하여 지구적으로 백신 거점지를 구축하기로 했다.<sup>46)</sup>

팩스 유니버설리스의 시나리오는 다자주의 국가들 뿐만 아니라, 다자

44) 강원돈, “세속국가의 헌정질서와 교회의 공론 작업: 루터의 율법설교에 대한 해석에 근거하여”, 앞의 글, 40-42.

45) ‘文, G7에 글로벌 백신 허브 구축 의지 천명 “2억 달러 지원”, 『아주경제』, 2021년 6월 13일자, <https://www.ajunews.com/view/20210613104954091>, 2021. 6. 25 접속.

46) “G7의 약속 백신 공조 본격화... 미 백신 공여 박차-WHO 지역 백신 거점 구축”, 『아주경제』, 2021년 6월 22일자, <https://www.ajunews.com/view/20210622164824513>, 2021. 6. 25 접속.

주의적 세계 기구들, 비정부 단체 등이 지구적 연대에 대해 포괄적으로 협력하는 방향을 모색한다.<sup>47)</sup> 종교 단체는 다자주의 국가, 세계 기구, 비정부 단체 등에 그들이 지속적으로 협력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sup>48)</sup> 지구적인 종교 단체 기구들 중에 기독교의 기구가 주목될 수 있다. 특히 개신교의 틀에서 세계교회협의회는 지구적 문제에 대해 사회윤리적 해결을 모색하고 있다. 가톨릭과는 다르게 개신교는 태생부터 다양성 속에 존재해 왔다. 기독교의 고유한 표상이면서 동시에 공공성에 대한 언어의 표현인 정의와 연대성은 세계교회협의회에서 지속적으로 논의되고 있다. 기독교의 예배 형식에서의 표현과 상징적인 언어들은 지구적 문제를 고민하는 다자주의적 국가들, 세계 기구, 비정부 단체들에게 영감을 불어넣을 수 있다.<sup>49)</sup>

세계교회협의회로 대표되는 에큐메니칼 운동의 시작은 325년 니케아 공의회다. 로마제국의 박해에서 벗어나면서 교리에 관한 다양한 의견들의 일치를 모색하는 것은 당시 기독교인들에게 매우 중요한 사안이었다. 공의회에서 결정되는 사안은 구속력을 가지며 당시 모든 기독교인들에게 적용되었다. 공의회는 삼위일체에 대한 논의를 필두로(니케아, 콘스탄티노플 공의회) 기독교론(안디옥, 칼케돈 공의회)의 교리를 확정시켜 지금까지 기독교인들은 이를 신앙으로 고백한다. 그러나 공의회의 역사적 과정을 고려할 때, 서로마 제국의 멸망으로 동로마 지역에서 펼쳐진 두 차례의 콘스탄티노플 공의회<sup>50)</sup>부터 시작해서 중세 아비뇽과 로마의 교황청

47) 자세한 내용은 문정인, 앞의 책, 123-128.을 참조하라.

48) T. Jähnichen, "Die Globalisierung gestalten - die christliche Ökumene vor den Herausforderungen der Globalisierung", *Weg zum Menschen, Zeitschrift für Seelsorge und Beratung, heilendes und soziales Handeln* 57-2 (März/April 2005), 115.

49) 위의 글.

50) 안디옥학과파 알렉산드리아학과 사이의 기독교론 논쟁은 451년 서방교회의 교황 레오 1세의 교서에 의해 그 유명한 두 본성 사이의 역설적 관계로 결정되었다. 그러나 서로마의 멸망 이후, 553년 콘스탄티노플에서 모인 제5차 공의회는 칼케돈에서 결정한

사이의 분열로 생겨난 공의회주의 원칙의 채택<sup>51)</sup>까지의 역사과정 속에서 공의회는 강력한 구속력을 가지지 못했으며, 단지 당시의 정치적 상황에 필요한 것을 선택했다.

세계교회협의회는 기존의 역사적 공의회와는 다른 성격이다. 개신교 내부에서의 첫 번째 공의회는 아직 개최되지 않았다. 콘라드 라이저(Konrad Raiser)는 세계교회협의회를 개신교의 첫 번째 공의회를 위한 공의회 과정으로 이해한다.<sup>52)</sup> 1948년 암스테르담 제1차 세계교회협의회 총회부터 2013년 부산 제10차 총회까지, 그리고 첫 번째 공의회가 개최되기 전까지의 모든 총회는 공의회가 아닌 공의회적 효과를 가지는 회의인 것이다.<sup>53)</sup> 세계교회협의회는 이곳에서 논의되고 결정된 사항들을 많은 개신교인들에게 구속력 있게 전달하는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지구적 문제에 대해서 강제력이 통용될 수 있는 공의회적 지구화에 노력을 세계교회협의회가 하고 있는 셈이다. 세계교회협의회는 특히 사회적 약자를 먼저 고려하면서 협력과 연대성을 강조하며 연대적 지구화를 구상하고 있다.<sup>54)</sup>

연대적 지구화를 향해 가는 세계교회협의회는 팩스 유니버설리스의 관

---

기독론보다는 알렉산드리아학파의 주장인 단성론으로 돌아갔으며, 681년 제6차 콘스탄티노플 공의회는 칼케돈 공의회를 결정으로 회귀했다. 보다 자세한 내용으로 W. Sommer und D. Klahr, 홍지훈 외 역, 『교회사 무엇을 공부할 것인가』, (서울, 한국신학연구소: 2008) 94 그리고 116-118을 참조하라.

51) 공의회주의에 의해 소집된 대표적인 공의회는 콘스탄츠 공의회(1414-1418)다. 여기에서 아비뇽의 교황, 로마의 교황, 그리고 또 다른 교황들의 퇴진을 결정하고 교황청의 통일을 일궈냈다. 아울러 개혁가 얀 후스(Jan Huss)를 처형시켰다. 보다 자세한 내용으로 위의 책, 171.

52) K. Raiser, *Wir stehen noch am Anfang. Ökumene in einer veränderten Welt*, (Gütersloh: 1987), 53.

53) 라이저는 이를 “공의회성”이라 부른다. 위의 책.

54) K. Raiser, “Überholt die Globalisierung die ökumenische Entwicklung?“, *Evangelische Kommentare* (1988. 12), 99.

점에서 설명될 수 있는 국가, 국제기구, 비정부 단체 등과 만날 수 있다. 문제는 기독교가 공론의 장에서 목소리를 내는 방법과 유사하다. 이를 위해서 트라우고트 예니헨(Traugott Jähnichen)의 주장이 설득력 있다고 본다. 그는 기독교에 요구되는 세 가지의 준비단계를 제시한다. 첫째, 기독교에게 “다른 세계관에 대한 관용의 실천과 다른 전통에 대한 존경”이 요구된다. 둘째, 기독교는 “구체적인 윤리적 시각을 발전”시켜야 한다. 마지막으로 기독교는 전 지구적으로 “가능한 많은 주체들과의 연합”을 구상해야 한다.<sup>55)</sup> 이렇게 볼 때, 대한민국의 개신교가 세계교회협의회에 적극 참여, 활동하면서 공공성의 회복 또는 확보를 도모할 수 있으며, 여기에서 파생되는 연대적 지구화를 위해 노력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 VI. 나가는 말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류는 새로운 일상을 경험한다. 경제적 이익을 찾아가는 욕구에서 생명을 유지하는 욕구가 절실한 시기로 전환되고 있다. 생명과 연결된 문제를 전 인류가 직시하고 있다. 생명을 위한 지구화는 사회적 약자들과 연대하며 더 나아가서는 생태계의 모든 생물체들과 연대해야 한다. 기독교에서 연대성은 인간들 사이를 넘어서 생태계까지 이어진다. 이는 총체적 연대성과 연관된다. 창조신학적 관점에서 인간은 생태계에게 대한 정원사적 임무를 부여받았다. 생태계를 경작하고 보호하라는 책임 속에서 인간과 피조물들 사이의 공생관계가 유지된다.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지구적으로 인간과 생태계까지의 연대를 통해 미래 세대에 대한 책임의식이 기독교에 이미 자리 잡고 있다.

연대성이 신학적으로 설정되고 연대적 지구화는 공공신학의 틀에서 실현시킬 수 있다. 기독교는 하나님이 주신 창조질서를 보존하고 돌보는

55) T. Jähnichen, 앞의 글, 117.

위임을 받았다. 이는 사랑의 실천을 통해서 가능하다. 사랑의 실천이 기독교가 해야 할 봉사이며 이 세상에 짊어질 책임이다. 코로나 팬데믹으로 사회적 약자에 대한 사랑의 실천이 절실하다.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 사랑의 실천이 전 지구적으로 필요한 시기가 도래한 것 같다. 백신을 가진 자들과 치료제를 가진 자들의 사랑의 실천은 지구적 연대성으로 가능하다. 연대성은 기독교적이면서도 동시에 공론의 장에서도 의사소통이 가능한 궁극 이전의 것으로 이해될 수 있기에 연대적 지구화를 위해 전 세계 기독교가 특히 세계교회협의회가 후원하기를 소망하고 대한민국의 개신교가 여기에 적극 동참하기를 희망한다. 아울러 대한민국이 코로나 방역의 매뉴얼을 제시하는 것처럼 대한민국의 코로나 방역에서 개신교가 받은 비난과 정죄함에 대해서 공공신학을 통해 회개하고 거듭남으로써 연대적 지구화를 위해 노력하는 모습을 소망한다.

## 참고문헌

- 강안일. “새로운 수도원운동: 본회퍼의 사상을 중심으로.” 『기독교사회윤리』, 37 (2017), 11-47.
- 강원돈, “세속국가의 헌정질서와 교회의 공론 작업: 루터의 율법설교에 대한 해석에 근거하여.” 『기독교사회윤리』, 40(2018), 11-47.
- 문정인. 『문정인의 미래 시나리오 코로나19, 미중 신냉전, 한국의 선택』. 서울: 청림출판, 2021.
- 이동호. “루터의 종교개혁과 디아코니아.” 『기독교사회윤리』, 41(2018), 41-68.
- 이동호. “칼빈의 경제윤리와 디아코니아.” 『기독교사회윤리』, 43(2019), 189-217.
- Burgsmüller, A. und Weth, B., (Hg.), *Barmer Theologische Erklärung, Einführung und Dokumentation*, (Neukirlichen-Vluyn, 1983)
- Beckmann, J., (Hg.), “Die Stuttgarter Schulderklärung”, in: *Kirchliches Jahrbuch 1945-1948*, (Gütersloh, 1950)
- Bedford-Strohm, H., “Solidarität”, in: Honecker, M., (Hg.), *Evangelisches Soziallexikon*, (Stuttgart, 2001), 1418-1421
- Bethge, E., (Hg.), *Dietrich Bonhoeffer Werke Bd.14*, (München, 1996)
- Bonhoeffer, D., *Sanctorum communio. Eine dogmatische Untersuchung zur Soziologie der Kirche*, Soosten, v. Joachim, (Hg.), (München, 1986)
- Brakelmann, G., *Abschied vom Unverbindlichen. Gedanken eines Christen zum demokratischen Sozialismus*, (Gütersloh, 1976)
- Brakelmann, G., *Zur Arbeit geboren? Beiträge zu einer christlichen Arbeitsethik*, (Bochum, 1988)
- Diamond, J., *Guns, Germs, and Steel*, 김진준 옮김, 『총, 균, 쇠』, (서울: 문학사상사, 2014)
- EKD, *Gerechte Teilhabe, Befähigung in Wandel der Arbeitswelt*, (Gütersloh, 2006)
- Fulcher, J., *Kapitalismus*, (Stuttgart: Kohlhammer, 2007),
- Huber, W., “Öffentlichkeit und Kirche”, in: Honecker, M., (Hg.), *Evangelisches*

- Soziallexikon*, (Stuttgart, 2001), 1165-1173.
- Jähnichen, T., “Die Globalisierung gestalten – die christliche Ökumene vor den Herausforderungen der Globalisierung”, *Weg zum Menschen, Zeitschrift für Seelsorge und Beratung, heilendes und soziales Handeln* 57-2 (März/April 2005), 105-118.
- Jähnichen, T., “Solidarität als Begriff der evangelischen Theologie und Sozialethik”, in: *Jahrbuch für christliche Sozialwissenschaften*, 48. Band, (Münster, 2007), 81-104.
- Luther, M., *WA*(Weimarer Ausgabe) 6, 36-60.
- Luther, M., *WA*(Weimarer Ausgabe) 51, 325-330.
- Raiser, K., *Wir stehen noch am Anfang, Ökumene in einer veränderten Welt*, (Gütersloer: 1987)
- Raiser, K., “Überholt die Globalisierung die ökumenische Entwicklung?”, in: *Evangelische Kommentare*, (1988. 12), 92-100.
- Sandel, M., J., *Justice*, 이창신 옮김, 『정의란 무엇인가』, (파주, 김영사: 2010)
- Sommer, W., und Klahr, D., *Kirchengeschichtes Repetitorium, 4. Auflage*, 홍지훈 외 역, 『교회사 무엇을 공부할 것인가』, (서울, 한국신학연구소: 2008)
- Strohm, C., “Calvinismus”, in: Honecker, M., (Hg.), *Evangelisches Soziallexikon*, (Stuttgart, 2001), 231-238.
- Authers, J., “How Coronavirus Is Shaking the Moral Univers”, Bloomberg News, Mar. 29. 2020,  
<https://www.bloomberg.com/opinion/articles/2020-03-29/coronavirus-pandemic-puts-moral-philosophy-to-the-test>, 2021. 4. 9. 접속.
- 『경향신문』, ‘109일 만에 ‘1차 접종 25%’…프랑스·독일보다 빨랐다’, 2021년 6월 15일자,
- <https://m.khan.co.kr/national/health-welfare/article/202106152118015#c2b>, 2021. 6. 25일 접속.
- 『이주경제』, ‘文, G7에 글로벌 백신 허브 구축 의지 천명 “2억 달러 지원”’, 2021년 6월 13일자, <https://www.ajunews.com/view/20210613104954091>, 2021. 6. 25 접속.

- 『아주경제』, “G7의 약속’ 백신 공조 본격화...미 백신 공여 박차-WHO 지역 백신 거점 구축, 2021년 6월 22일자, <https://www.ajunews.com/view/20210622164824513>, 2021. 6. 25 접속.
- 『조선일보』, ‘유럽의약청 “셀트리온 치료제, 코로나 중증 진행 위험 환자에 사용 가능”, 2021년 3월 26일, <https://www.chosun.com/international/europe/2021/03/26/UWHRU36JQVAJPNDSSZYG3NCXV4/>, 2021. 4. 9. 접속.
-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 2020년 11월 24일 방송, “코로나 백신은 공공재, 정부에 협조할 것”(서정진), [https://www.youtube.com/watch?v=gbkqC\\_qT06o](https://www.youtube.com/watch?v=gbkqC_qT06o), 2021. 4. 9. 접속.

논문투고일: 2021년 6월 29일

심사개시일: 2021년 7월 15일

게재확정일: 2021년 8월 19일

• 국 문 초 록 •

본 연구는 팬데믹 시대의 기독교윤리의 과제를 연대성의 관점에서 접근한다. 기독교 윤리적 측면에서 연대성의 개념은 성서와 신학에서 유추될 수 있다. 우선 성서의 증언 속에서 이웃 사랑의 실천이 현대적 의미에서 연대성으로 볼 수 있다. 구약성서에서 인간은 서로 연대하도록 창조되었으며, 사회적 약자들을 위해 연대할 경우, 하나님은 축복으로 응답하신다고 증언한다. 신약성서에서 예수는 사회적 약자들과 연대하고 하나님의 자녀들로 하여금 이웃 사랑의 실천을 통해서 연대하라고 증언한다. 종교개혁 시대를 거치면서 연대성은 하나님이 인간에게 부여한 자유를 통해서 이루어진다. 연대성은 지금까지의 기독교의 특혜와 계층 간의 불평등 해소를 위해 공동체가 좋은 삶으로 정해져 내려오는 미덕으로서 묘사될 수 있다. 더 나아가 연대성은 상호협력을 통한 행동을 포괄하기 때문에 인류의 윤리로 제시된다. 에큐메니칼 운동은 가난한 사람들을 우선하면서 생태까지 범위를 넓혀 연대성을 제시한다. 이런 관점에서 본 연구는 에큐메니칼 운동은 지구적으로 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으로 해석한다.

**주제어:** 포스트 코로나, 연대적 지구화, 공공신학, 팩스 유니버설리스, 세계교회협의회

